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임두성을 만나다

어느 해 보다 봄 더위가 일찍 찾아온 5월, 지난해 국회에 등원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중 '최초'의 한센인 출신 국회의원 임두성 의원을 만났다. 임두성 의원의 한센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향한 지지와 관심은 그가 한센인 출신이라는 양력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따뜻한 정책을 통해 소수자들에게 편견과 차별의 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의원님께서 한센병 병력이 있으신데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남 해남 섬마을에서 3남 2녀의 장남으로 태어나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8살이던 1967년 한센병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소록도에 보내져 강제수용됐다. 2년 만에 극적으로 섬을 탈출했습니다.

병이 완치된 후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지만 한센인이라는 굴레에 갇혀 사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서울역과 영등포 등지에서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제 아내를 만나면서 한센인 정착촌에 뿌리를 내려 딸 넷과 아들 하나를 낳고 무사히 길러냈습니다.

이후 한센인을 위한 삶을 천명이라 여기고, 평생을 한센인 인권회복과 권익보호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보면, 항상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빛이 따뜻한 세상'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따뜻한 빛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라는 홈페이지의 슬로건이 눈에 띕니다. 의원님의 좌우명인지요?

한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평생을 자독한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았습니다. 자연스레 저의 시선은 우리사회의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을 향합니다. 소외계층이 느끼는 아픔과 바람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기에, 이 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저에게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 춥고 어둡습니다. 성장의 그늘에 가린 소외계층의 편에 서서, 이 분들이 따뜻한 희망의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의 슬로건은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의원님께서 국내 최초 한센인 출신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한센인 출신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라는 표현이 활동하시는데 부담되지지는 않으신지요?

한센인 탄압의 역사가 자그마치 100년입니다. 한센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답게,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는 10만 한센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안고 제가 국회로 온 것인 만큼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의정활동에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정해진 임기 내



이제 에이즈 감염인과 환자분들도 스스로 사회의 높은 벽을 깨야 합니다.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질병정보를 바로 알리고, 감염인들의 사생활이 무절제한 것 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도 불식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제2·제3의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힘껏 응원할 것입니다.

에 달성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력할 수 있습니다. 한센가족들의 든든한 응원도 큰 힘이 되고요.

한센병은 치료를 받게 되면 전염이 되지 않지만 잘못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아직도 한센병 환자들의 사회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AIDS에 대한 차별의식·부정적 인식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아' 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발표하셔서 알고 계시듯이 국내의 에이즈 환자들 역시 에이즈라는 질병보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센병과 에이즈는 사회적 차별의식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으므로, 저의 경험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한센복지협회장 취임 후 가장 강조해 왔던 것 중 하나가 한센인들 스스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사회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센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이웃임을 당당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커밍아웃을 했지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대가도 톡톡히 치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둘째딸이 파혼위기를 겪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둘러싼 주변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다른 한센인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지요. 이제 에이즈 감염인과 환자분들도 스스로 사회의 높은 벽을 깨야 합니다.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질병정보를 바로 알리고, 감염인들의 사생활이 무절제한 것 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도 불식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발생현황은 아직 외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아시아 지역의 에이즈 발생 급증하는 환경에 따라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예방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에이즈정책은 감염인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염인들의 인권문제가 도외시된 측면이 있고, 예방사업은 공포분위기 조장 수준의 후진적인 교육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향후의 에이즈정책은 예방과 조기진단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성병에 대한 정확한 질병정보제공, 성병예방교육, 성윤리교육 등 제대로 된 생명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간이검진소, 이동검진소 등을 활용해 자발적 검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의식 철폐를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도 필요합니다.

레드리본 독자들에게 국회의원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한센인들의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받은 한센인들

의 고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 다만, 국회에 들어와서 보건 복지 관련 정책을 다루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한센인들보다 더 어렵고 소외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의 희망과 행복을 되찾아주는 데 남은 3년을 바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상식과 원칙이 살아 있는 사회,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보지 않는 사회,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40년간 한센인권운동가로 살아오시면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낙인에 맞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의 지난 삶을 보십시오. 일평생을 지독한 질병, 가난, 편견 속에 살아온 저 임두성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바로 여러분의 '희망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제2·제3의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제가 힘껏 응원할 것입니다. ✎